

우주時代의 詩

—Ray Bradbury를 中心으로—

國民大學校 李 廷 基 教授

1. 紹 介

레이 브래드베리는 科學小說 또는 未來小說의 많은 작품을 생산해 낸 현재의 미국 작가이자 詩人이다.

그는 500편 이상의 단편 소설, 詩, 장편소설, 희곡 등을 35년 동안에 걸쳐 생산해 냈다. 그러한 그의 작품들은 미국의 세터데이 이브닝, 플레이보이, 뉴유 리퍼블릭, 하아퍼즈 등 주요잡지에 발표되었을뿐 아니라 <무서운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三文 탐정소설> 등의 단행본 잡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영화에도 많이 上映되었는데 《2萬피트 海底의 動物》《外界에서 왔다》등이 있고 펠릴의 《白鯨》을 映畫시나리오로 바꾸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劇團도 만들어 1964년 이래 자기 작품을 上揚시켰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處女詩集 《꽃이 핀 풀밭에서 코끼리들이 오래 살아갈때》라는 것을 펴내기도 했다.

2. 宇宙科學時代의 詩思想

1976年 7月 2日 NASA主權의 <왜 인간은 탐험을 하는가?>라는 주제의 科學者 및 文學人들 사이의 세미나에서 그가 한 말을 직접 들어보면, 그의 宇宙科學時代에 있어서의 詩思想 및 태도를 알 수가 있다.

브래드베리는 宇宙科學에서 詩가 어떠한 구실을 하느냐에 관해서 설명함에 있어 宇宙科學에서 메터포(隱喩)를 창조하는 자가 곧 인간—詩

人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우주 과학이 하는 일에 어울리는 메터포를 찾아냄으로써 우리 인간은 여러가지 방향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다 그 하나의 예를 그는 다음과 같이 든다.

어느날 자기 친구가 전화를 걸어서 하는말이 「여보게 100년 전에 아프리카橫斷의 <이집트橫斷鐵道>를 만들었을 때, 燃料가 떨어지면 기관차를 곧잘 정지시켜 놓고 가까운 墓地로 달려가서, 무덤에서 미이라(木乃伊)를 훔쳐 와서는 화통에 넣고 매면, 그것이 연료가 되어 한밤중에 이집트를 橫斷했다는거야?」라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브래드베리는 메터포의 아이디어가 떠올라 당장 詩를 한 수 썼다. 그러니까 미이라를 불태워 기관차를 움직였다면 그 미이라로 남겨진 이집트의 神과 女神들은 그다음부터 영원히 이집트 사막을 橫斷하는 손님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다. 즉 영원히 인간 또는 生命이 살아남는 方法의 메터포가 기관차라는 科學의 生産品과 연결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뜻이 되겠다. 이것은 곧 니체가 말한 「우리 인간은 眞理로 인하여 죽지않는 기술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그에게 연상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또하나 그는 텔레비전에 관해서 예를 든다.

美國人과 NASA는 너무도 많은 科學的 사실을 T.V를 통하여 관찰하는데 이를테면 宇宙空間을 T.V로 목격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宇宙가 아닌 가짜라는 것이다. 어째서 그러한가? T.V자체가 實際 우주를 조그만하게 縮少해서 아름다운 형태(즉 메터포의 형태)로 나타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을 브래드베리는 「크

기의 美學]이라고 命名한다.

이를테면 T.V는 300피트 높이의 로키트도 14인치의 이미지(像)로 바꿔 버린다. 즉 실제의 事實을 메터포로 바꿔버린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킹콩에 관한 映畫도 영화의 大型스크린에서는 킹콩이 인간을 손아귀에 움켜쥐는 모습이 實感이 나지만, T.V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것은 이태리의 보티첼리나 다빈치의 그림같은 것은 實物이 인간보다 더 커다란데, T.V에서는 인간의 손아귀에 들 정도로 적어지며, 書籍에서는 탁 책을 덮어버리면 없어지는 그러한 少物로 변한다.

요컨대 이상과 같은 科學이 만드는 메터포의 文化속에서 우리 인간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우리 인간이란 詩와 交響曲 같은 藝術的 指向이 될 때, 인간은 科學이라는 데이터 자체로 指向하는 것이다」(We're data oriented When we should be poetry and Symphony oriented)라는 뜻이 된다고 한다.

그는 또한 1975년에 쓴 자기의 科學小說을 소개한다. 거기에 보면 宇宙船 탐승원들이 모두 거창한 女子人形을 안고서 宇宙空間에서 위안을 받는데 주인공인 「나」는 無益한 知性人인 늙은 로보트를 데리고 가서, 宇宙船속에서 매일밤 그것에 生氣를 불어 넣어 宇宙에 관한 대답을 나눈다. 이 로보트는 바로 英國의 저명한 20세기 초기의 극작가, 버너드 쇼우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로보트는 主人公과 對談中에 「우주, 그것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어느날 宇宙空間의 높은 곳에서 未來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大宇宙와 銀河水를 바라보면서 술을 함께 마신다. 그때 로보트는 「우주속 生命의 현이란 무엇인가? 우리 生命體라는 이 놀라운 존재는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知와 意志로 바꾸는 物體며 어떤 힘이다. 그러니까 想像力과 意志로 바꾸는 것이지! 자기 자체를 모르고 있는 물체며 어떤 힘으로서, 우주를 상상력과 意志로 바꾸고, 그 자체가 죽지않고 살아 남으려 바라는 것이지!」하

고 말한다. 바로 그말은 지금부터 50~70년전 쇼우가 기록한 宗教科學小說의 한 대목의 말인데, 이렇게 해서 브래드배리는 科學의 로보트를 메터포로 승화시킨다. 이것은 T.V가 宇宙科學의 모든 사실들을 소위 「크기의 美學」이라는 형태로 메터포화하는 과정과 같다. 그러므로 메터포, 즉 詩는 宇宙科學이 살아남는 형식이 된다는 意味를 갖는다.

이러한 브래드배리는 케이프 케네디 로키트發射場을 방문해서 격납고 위의 500피트 높이의 組立場을 관람하며 그 어마어마한 光景을 다시 메터포—詩의 形態로 살아남게 하려 한다. 그때 그는 그 로키트發射臺 내부자체를 세익스피어의 머리(생각)속의 형태로 상상하는 메터포를 건축한다. 그리하여 여기서 發表者가 제시하는 詩를 그는 쓰는 것이다.

3. 詩(發表될)의 內容

이 詩는 題目이 없는 즉흥시이지만 發表者가 편지상 《케이프 케네디宇宙센터》에서 라고 제목을 붙여 주었다.

이 詩의 內容은 케이프 케네디宇宙센터를 세익스피어의 머리(생각)속과 같은 것으로 우선 상상하고, 세익스피어의 《햄릿트》, 《오델로》의 內容을 중심으로 해서 宇宙센터를 메터포화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부차적인 센터의 現場을 美國의 19세기 作家, 멜빌의 〈白鯨〉의 內容으로 이미지化하여 가다가 프로이트나 칼 융의 精神分析學에서 오델로의 이미지가 다시 科學化한다. 즉 프로이트의 無意識 世界에서의 인간 기억이라는 기능과 그것을 集團心理學으로 끌고가서 아득한 原始時代의 潛在意識 즉 神話的 原型的의 보존, 내지 傳來를 증명해 낸 융의 심리학에다가 오델로의 文學를 연결시킨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중요 科學인 進化論의 生物 遺傳學의 理論으로 오델로의 세익스피어의 文學과 詩와 정서를 더욱 科學의으로 뒷받침하는 메터포를 만들어 낸다. 환언해서 人類의 기수의 공통성—메터포라 할 수 있는 神話原型을 發生遺傳因子的 雜種의 方程式의 메터포로 詩의 이미지를 구성해

우주시대의 詩

내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러한 메터포는 조지 오웰의 예언적 과학소설인 <1984年>의 메터포가 修正되어야 할 70년대의 宇宙科學을 이미지化하여 다시 그것이 험리트의인 懷疑도 이 宇宙科學에서 녹아 버리고 聖書속 욕의 목소리도 녹아 모든 것이 인간의 意志에서 永劫으로 살아 남는 새 인간상을 이미지로 부각시킨다.

이것은 곧 인간의 이제는 神과 같은 存在로 접어드는 위대한 순간임을 布告하면서 詩를 끝맺고 있다.

케이프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레이 브래드베리작
李 延 基 옮김

오웰로의 작업들이 여기에 있다.
여기 못나라에서는
불결속을 수많은 宇宙人들이 움직이며
달 世界를 熱望하고 火星을 향하며
불타는 原子에 詩를 가르치고
神 잃은 땅에 사나운 피를 가지고 와서
눈서리같은 달나라
모래를 밟으며
결코 「죽느냐 사느냐」고 懷疑하지 않는다.
왜냐면 여기엔 모든게 다 존재하며
명령 일하에 그것들이 다시 존재하기에
인간의 探索이 여기에서
宇宙를 가르질러 나아가서 인류를 空輸한
첫 발을 내딛는다.
위험하고 좁은 통로에서 소경처럼 너비와 높이를
걸어가며
세익스피어의 마음만큼 광막한 珍奇스런 組立場
에서 視綜을 세워
여기 한 때 멜빌이 즐면서 눈뜬채 白鯨을 꿈꾸
던 것을 생각해 본다.

액체 산소를 퍼올려 피를 만들고
승리에 찬 神의 한 마디 진동하는
목소리와 함께
그는 로키트를 터뜨려
치솟는 달探索 고래들트 하여
광막한 星座의 바다를 헤엄치게 했던 것
하나 이 固體 짐승은 추락 하리라.
산산히 해체되어 한 방울 이슬이 되리라.
아니다, 이 固體 짐승이 높이 올라
하나의 불결로 해체되어
관찰하고 이해하고 建築하고 노력하러
떠하도록 부탁하라.
왜냐면 神이 죽었다면
진정 인간도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그렇다, 그렇다!
神도 인간도 聖靈도 새색씨 처럼
온 살별宇宙가 맞이해서 血氣를 넣어 주다니.
불을 끄라
그리고 또 불을 끄라고?
아니, 아니, 밤을 밝혀라!
그리고 또 밤을 밝혀라.
해임된 오웰로가 이제 재임용되어
칼드·웅과 프로이트로부터
인간種族의 記憶을 불러 일으키고
遺傳學에서 眞髓를 불러 일으킨다.
神의 뜻을 추구하라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 星座의 언덕배기로 보내어
1984년의 무서운 報道를 바꾸고
또 그 報導陣을 보내어
인간이 꿈에도 염두내고 수없었던
記事를 소리높게 외치게 하도록.
2002년에 조지 오웰이 걸걸래고 웃게 하라.
「커다란 일이 발생하리라」고? 그렇구나.
여기 제임즈 캐벌이 서있나니.

H.G. 웰즈의 거창한 아들이,
 빙빙 돌아가는 天體들과 불꽃 바다를 바라보고
 「어느게 어느 것일까」 의치던 者가.
 사체가 누운 무덤, 細菌이 득실대는 墳墓로
 되 가라앉아, 또는 잃어버린 火星으로 나아가
 인류를 구제한다고? 그렇다면
 별들이 날려 떨어지는 바람은 불어
 「어느게 어느겐가」고 끝없이 되울림치리라.
 오오, 방황하는 인간이여
 어느 것일까, 어느게 어느 것일까?
 나는 이곳을 걸으면서
 셰익스피어의 時間과 꿈을
 그의 밤의 廻廊을
 時間속에 잃은 그의 섬들을 잃어낸다.
 그의 우뢰소리, 소문들,
 새터언宇宙船 추진체 선반에서
 죽느냐 사느냐는 그의 自己懷疑를 잃어낸다
 나는 셰익스피어의 머리속
 우리의 광막한 旅程을 측량하며
 죽었다고 생각된 것이 살아있음을 발견한다.
 셰익스피어의 이쪽 귀에서 저쪽 귀로
 불타는 피의 복도를
 거기엔 칸칸이 막힌 노틸러스核潛水艦처럼
 방속의 방에서 잃어버린 인간이
 케이프 케네디 로키트發射場,
 셰익스피어의 出生地인 에이번江과
 이웃을 이루고 있다.
 인간은 상실된 것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 그렇다, 진토된 白骨속
 아니 세월의 쓸아지는 비속에서
 인간이 상실되어진 것은 아니로다
 <햄릿>속 무덤에서 파낸
 요리크頭蓋骨에서 神의 布告文이 엿보고 있다.

墓地의 진토로 성큼성큼 걷는 인간을 만들어
 星座를 뛰어 다니게 해서
 다른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려고 한다.
 저 飛行船의 우주 비행에서 무엇이 그를 끌어 당
 기는가?
 셰익스피어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子息들의 탄생이여
 말없는 지루한 宇宙 촬영의
 텔레비 뉴스는 잃어버린 인간에게
 生氣를 넣지 못하건만,
 意志는
 宇宙空間의 大異變이 계획하는
 죽음의 잠자리에 든 잃어버린 인간에게
 生氣를 넣어주고 「율」에게 대답한다
 이 덧없는 肉身이 차갑게 내던져져
 땅에 묻혀 죽는 까닭을
 고뇌와 고통에서 물어보는 그에게 대답한다
 「그렇지 않다!」고 플레이아데스 星群이
 응변을 토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셰익스피어 誕生地 스트라트포어드의
 튼튼한 마음에서 우리는 건축되어
 나아가 버림대처럼 星座의 通路를 걸어
 宇宙深淵을 건너며
 未탄생의 경이에 찬 조그마한 영혼들에게
 굳게 다음과 같이 약속을 행한다
 「산다는 것」은 최상의 일이다
 「죽는다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노라고.
 그러던 意志는 뭇이라 말하는가?
 「여기 버티어 서서 크게 자라 삶을 반복하라.
 神으로 자라나는 인간이 되어
 宇宙를 행동으로 설명하라!」한다.